호샤쿠지 절

덴노잔 산 중턱에 위치하며 '보물의 절'이라고도 불리는 호샤쿠지 절에는 귀중한 불상과 불구(佛具)가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.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지옥의 왕인 염마대왕과 4 인의 종자 상입니다. 호샤쿠지 절에 있는 것은 이 5 구가 일습을 이루는 상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사원의 보물은 수 세기에 걸쳐 참배자에게 행운을 가져다주기 위해 사용된 막대 모양의 '우치데'와 망치 모양의 '고즈치'입니다. 4 월에 열리는 '오니쿠스베'라는 의식은 복숭아나무로 만든 활과 쑥잎을 깃털로 단 화살, 노송나무 잎, 그리고 가가미모치를 사용해 악마를 퇴치하는 것으로서, 이는 가장 초기의 액막이 행사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

역사와 전설

호샤쿠지 절은 쇼무 천황(701~756 년)의 칙명을 받아 승려인 교키(668~749 년)가 724 년에 건립했습니다. 전설에 따르면 이 사원은 쇼무 천황이 꿈에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우치데와 고즈치를 용신으로부터 전해받아 이를 모시기 위해 지어졌습니다. 다른 전설에서는 784 년에 홍수로 인해 다리가 떠내려가 천황의 행렬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, 한 노인이 나타나, 물 위를 걸어서 훌륭히 다리를 복구한 뒤, 호샤쿠지 절 방향으로 향하는 한 줄기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이때의 노인이 실은 호샤쿠지 절의 십일면관세음보살로서 관세음보살상의 발을 확인해보니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전설에서 '교가(橋架)관음'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.

호샤쿠지 절은 긴 역사 속에서 덴노잔 산 주변의 전투에 휘말린 때도 있었습니다. 1582 년의 야마자키 전투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 년)가 자기 군의 거점을 호샤쿠지 절에 두었습니다. 또한 에도 시대 말기인 1864 년에는 교토고쇼 근처에서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반란 투쟁이 발생했는데, 사건 뒤에 남은 반 막부군 병사들이 호샤쿠지 절에 진을 치고 덴노잔 산에서 최후의 저항을 했습니다.

엔마도

엔마도(閻魔堂)에는 이 사원에서 가장 유명한, 명계를 관장하는 염마대왕과 그의 네 명의 수행자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사자의 영혼을 재판하는 염마대왕은 커다란 관을 쓰고 손에는 홀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. 염마대왕 주위에는 각각 악행을 적어두는 '시로쿠', 생전의 죄를 낭독하는 '시묘', 판결을 언도하는 '구쇼진', 이를 기록하는 역할을 맡은 '안코쿠도지'가 있습니다. 이 조각상들은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 년)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참배자는 염마대왕에게 죄의 용서를 구하며 불당 내에 설치된 특별한 투함 상자를 사용해 염마대왕에게 참회의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.

경내와 본당

본당에는 본존인 십일면관세음보살 입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이 상은 가마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고즈치노미야(小槌宮)에는 칠복신 가운데 한 명인 대흑천의 수많은 목상과 칠복신의 모습을 새긴 보물선, 그리고 개운과 소원성취를 위한 제례에 쓰이는 우치데와 고즈치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. 고즈치노미야에서 기도를 올리면 예전에는 참배자의 손을 불구(佛具)로 가볍게 3 번 두들기고, 참배자는 주먹을 쥐어서 그 효험을 집에 가지고 돌아갔지만, 현재는 효험을 밝은 색의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기 때문에 주머니 입구를 묶어서 가지고 돌아갑니다. 또한 많은 신사나 사원에서 볼 수 있는 에마처럼 형형색색의 복주머니에 소원을 적어 기원할 수 있습니다.

경내에는 야마자키 전투에서 여기에 진지를 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. '일야탑(一夜塔)'이라고 불리는 삼층탑은 히데요시 군에 의해 하룻밤 만에 지어졌다고 합니다. 또한 본당 가까이에 있는 '출세석(出世石)'은 히데요시가 앉아 천하통일이라는 목표에 대해 숙고했다고 하며, 이 돌에 앉으면 히데요시처럼 출세할 수 있다고 합니다(스님 또는 절 직원의 허락을 받고 나서 앉으시기 바랍니다).